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10.8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3.7	-0.6	-0.2	-6.7	9.1	9.1	1.0	1.0	2.1	2.1	
통신업종	0.3	5.9	19.9	20.5	8.5	8.5	0.9	0.9	3.3	3.3	
SK텔레콤	2.2	6.6	23.5	20.9	7.1	7.4	1.0	0.9	3.6	3.7	
KT	0.2	3.6	8.9	8.7	10.9	10.8	0.6	0.6	3.5	3.8	
LG유플러스	-3.4	9.6	25.6	38.3	13.4	12.4	1.2	1.1	2.5	2.8	
AT&T	1.2	5.8	4.0	-4.6	9.7	9.4	1.3	1.3	5.9	6.0	
Verizon	2.9	1.7	6.7	15.7	11.8	11.6	4.1	3.5	4.3	4.5	
T-Mobile	-2.3	6.5	12.2	15.0	21.1	17.2	2.3	2.1	0.0	0.0	
Sprint	-1.5	8.2	14.4	25.0	33.2	N/A	1.0	0.9	0.0	0.0	
NTT Docomo	-2.8	4.2	5.8	5.8	15.2	15.1	1.9	1.8	3.4	3.7	
KDDI	-5.1	1.7	-3.4	7.5	12.7	11.5	1.9	1.8	3.1	3.4	
Softbank	-3.4	11.4	33.5	45.0	11.1	15.6	2.3	2.0	0.4	0.4	
China Mobile	2.0	2.5	11.4	8.4	12.1	11.9	1.3	1.3	4.0	4.1	
China Unicom	-1.5	-1.9	-3.7	-9.6	28.8	18.1	0.8	0.7	1.3	2.1	
China Telecom	4.8	-0.5	9.1	14.2	13.9	12.8	0.8	0.8	3.0	3.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0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4.0%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전반적인 주식 시장 부진 속에 방어주인 통신주에 관심이 지속되는 모습 한편, 9월 번호이동 건수는 43만 8천여 건으로 전월 대비 8만여건 가량 감소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10월 10일 과방위 국정감사 일정에 주목 통신 3사 CEO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만큼 망중립성, 보편요금제 등 주요 이슈 논의 예상 저가 요금제가 이미 출시된만큼 보편요금제 도입 당위성은 많이 낮아진 상황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규제들과 이를 수용하는 통신사 입장에 따라 단기 주가 방향성이 결정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1 정기 국회 재개	2	3	4	5	6
7	8	9	10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	11	12	13

3 주간 뉴스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과방위 국감...핵심 쟁점은?

(아시아투데이)

- 과방위 국감에서는 외국계 인터넷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와 보편요금제 이슈 등이 거론될 전망
- 보편요금제로 인해 알뜰폰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
- 과방위는 26명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의견을 확정. 기존 실무진 대신 사장단으로 증인 변경
- ⇒ 저가 요금제가 출시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로 인한 추가적인 악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 한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 제출

▶ 통신요금, "신고제도 폐지해야..."김성태 의원 추진

(Digital Times)

- 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 인가에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제 또한 인가제처럼 운영됨에 따라 시장 내 경쟁이 약화된다고 설명
- 또한, 인가제와 신고제를 함께 폐지해 혁신적 요금제를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 기존 발의 법안들과 달리 신고제도 함께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
- ⇒ 국감 이후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 본격화 예상. 통과 시 통신사들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될 전망

▶ 삼성, LTE 장비 시장 점유율 10% 돌파...5G 20% 목표

(연합뉴스)

- Dell'Oro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LTE장비 시장 매출 점유율 11.0%로 4위 기록
- 3G 포함 전체 시장에서는 9.0%. 1~3위는 화웨이(31.2%), 에릭슨(29.8%), 노키아(23.9%)
- 삼성전자는 스프린트의 5G 레디 LTE 장비 발주 및 릴라이언스 지오향 매출 덕분에라고 설명
- ⇒ 최근 북미 시장에서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5G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더욱 키울 수 있을 전망
- ⇒ 또한 유럽, 아프리카의 일부 통신사들과도 장비 공급을 논의 중. 5G 장비 점유율 20% 목표

▶ 9월 알뜰폰 가입자 월별로 역대 최대 이탈

(ZDNet Korea)

- KTOA에 따르면 9월 번호이동 건수는 약 43만8천여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8만여건 가량 감소
- 사업자별로, SK텔레콤 가입자는 5천650명 순감. KT 2천58명, LG유플러스 3천592명 순증
- 알뜰폰 가입자는 2만2천636명이 이탈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 8월에는 1만 9천명 가량 이탈
- ⇒ 1)정도로 인한 영업일 감소, 2)이달 출시되는 전작 스마트폰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요가 반영
- ⇒ 이통 3사가 월 2만원대 요금을 책정하는 등 LTE 요금제 가격을 인하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양상

▶ SK텔레콤, ADT캡스 인수 완료... "빈틈없는 AI보안 시대 연다"

(Digital Times)

- SK텔레콤이 지난 5월 8일 인수 발표 후 약 5개월 만에 ADT캡스 인수를 완료했다고 1일 발표
- 올해 안에 손자회사인 NSOK를 ADT캡스와 합병할 방침. 또한 일본 업체들과 협력도 계획 중
- 한편, 지금까지 제조사 한곳이 5G 장비 인증을 받았으며 화웨이도 5G 장비 시험 인증을 신청
- ⇒ 기존 보안 시장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
- ⇒ ADT캡스의 건물관리 노하우에 IoT 기술 등을 더해 주차장 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

▶ 과기정통부 "세계최초 5G 스마트폰 상용화, 내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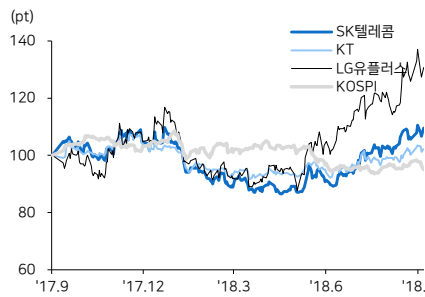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 과기정통부는 기자설명회에서 12월 5G 최초 상용화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 12월 1일부터 5G 주파수를 송출, 전용 단말(통글·모바일라우터)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을 예정
- 한편, 지금까지 제조사 한곳이 5G 장비 인증을 받았으며 화웨이도 5G 장비 시험 인증을 신청
- ⇒ 스마트폰 상용화는 변함없이 3월 예정. 그러나 사업자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
- ⇒ 하반기 중 완료하기로 한 필수설비 산정대가는 진행 중. 세액공제 사안 역시 기재부에 제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81,000	20.0	14.9	15.2	1.2	1.2	2.8	2.6	4.1	4.2	5.9	5.8	16.2	13.5
	KT	30,000	6.9	20.5	20.8	1.2	1.2	0.6	0.6	4.2	4.2	2.6	2.6	5.9	5.7
	LG유플러스	17,150	6.6	10.8	11.1	0.8	0.8	0.5	0.5	2.2	2.4	4.0	3.8	9.9	9.7
미국	AT&T	34.0	246.8	173.4	185.9	32.1	36.4	23.6	26.4	56.1	60.7	7.6	7.0	13.8	14.8
	Verizon	54.9	227.0	130.7	132.0	29.4	31.1	19.0	20.1	47.5	48.8	7.2	7.0	38.8	33.6
	T-Mobile	68.6	58.1	43.0	45.3	5.3	5.9	2.7	3.3	12.0	12.9	7.4	6.9	12.8	12.2
	Sprint	6.4	26.2	32.4	32.9	2.6	2.4	5.5	-0.0	11.1	12.3	5.3	4.7	14.1	0.3
일본	NTT Docomo	2,970	98.9	44.2	42.4	9.1	8.9	6.7	6.2	13.9	13.6	7.4	7.2	12.6	12.2
	KDDI	2,979	66.4	45.8	45.2	9.0	9.0	5.3	5.4	14.1	14.0	5.8	5.6	15.6	15.8
	Softbank	11,075	107.3	83.8	82.7	11.6	11.9	9.9	6.6	25.0	24.8	10.3	10.1	22.0	12.8
중국	China Mobile	77.6	202.6	110.1	113.0	17.9	17.8	16.9	17.1	40.8	41.9	3.3	3.2	11.4	10.9
	China Unicom	9.1	35.4	41.6	43.8	1.4	2.4	1.2	2.1	12.7	13.6	2.9	2.7	2.5	4.1
	China Telecom	4.0	40.8	55.8	58.0	4.3	4.6	2.9	3.2	15.4	16.0	3.2	3.1	6.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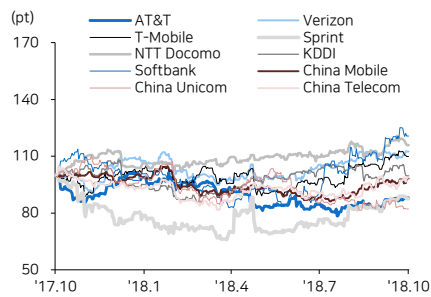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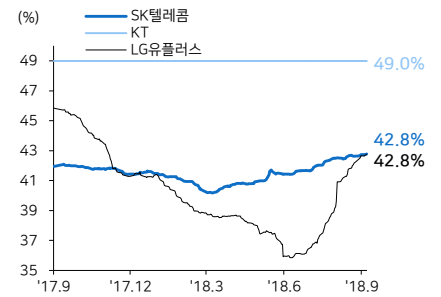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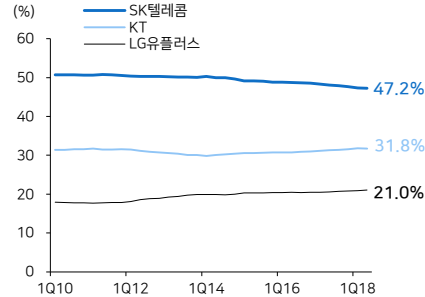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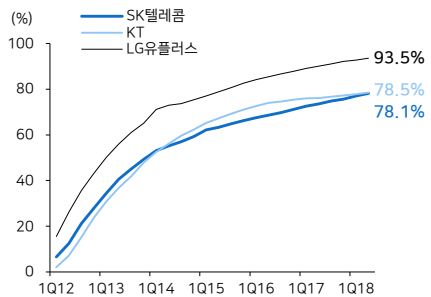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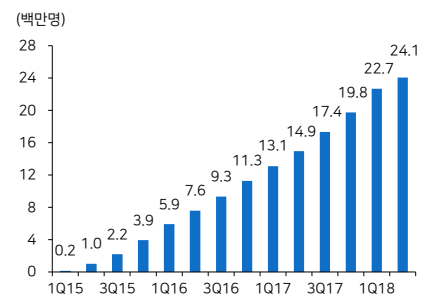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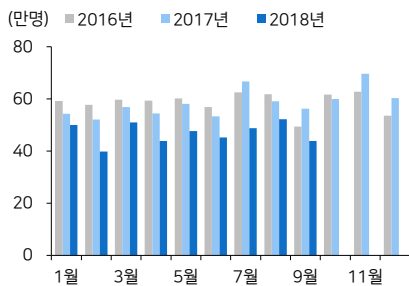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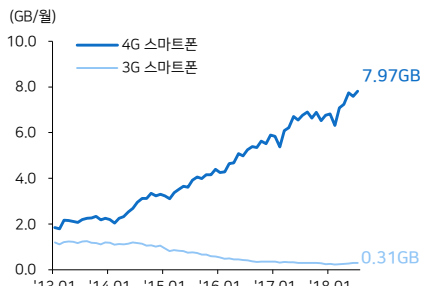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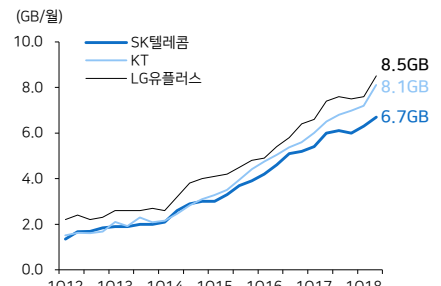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8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8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8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